

2026학년도 수시모집

모의논술고사 시험문제

[인문계열]

고교명	
성명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특징

- 한신대학교 논술고사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준비가 가능한 문제로 구성되어 평소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쉬운 논술, 약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어 여타 논술고사와는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출제방향

- EBS수능특강, 수능완성 등의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중심이 되고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3. 평가방법

구 분	반영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80%	10	5	각 문항 8점	80분	120점+680점(기본점수) = 총 800점	노트 형식의 답안 작성
자연계열	80%	5	10				

4.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 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 I, 수학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자유전공학부	30	인문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7
	한국어문학	6		경영학	17
	철학	6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6
	한국사학	7		사회학	6
	문예창작학	6		사회복지학	5
	독일어문화학	6		재활상담학	6
	영미문화학	7		심리아동학	6
	중국어문화콘텐츠학	7	자연	금융공학	1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빅데이터융합학	10
	일본학	7		AI·SW학	65
	동아시아통상학	7		AI시스템반도체학	12
	경제금융학	12			
	국제관계학	6			
				합계	261

국어영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 주자학의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 국가 이념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 의식에 의거하여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입각한 쇄국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주자학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서구의 과학 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던 이항로(1792~1868)는 과학 기술 수용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상 윤리*를 모르는 사학(邪學)*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리(理)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리가 기(氣)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 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다. 이에 따라 이항로는 이들과 더불어 화친(和親)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1859~1925)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대포와 거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 기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과학 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 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 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감각 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 기술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 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되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를 지키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적 입장과 닮아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이었다. 그는 밀려 들어오는 서구의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인 이론 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양명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簡易直截)'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였다. 양명학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良知)*였다.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앎이라고 생각했다. 즉 양지는 고정된 앎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大人)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大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강상 윤리(綱常倫理):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사학(邪學): 조선 시대에, 주자학에 반대되거나 위배되는 학문을 이르던 말.

*양지(良知): 양명학에서 말하는 정신, 마음의 본체, 주체성, 타고난 지혜 등을 아우르는 개념.

1. <보기>는 이항로와 박은식의 대비되는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 보 기 > —

구분	이항로	박은식
사상의 기반	• 주자학, 성리학	• 양명학
세계 인식 및 서구에 대한 입장	• 중화 중심의 사유 • 서구에 대한 쇄국 • (①)	• 근대화된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인지 • 조건적 수용 • 동도서기
(②)에 대한 관점	• 사학(邪學) • 현상을 중요시하는 학문	• 학문의 중심이자 시급한 연구의 대상 • 경험과 실증을 중요시하는 학문
결론적 입장	• 서구와 화친을 논할 수 없다.	• 주체성을 지니고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2. <보기>는 박은식과 관련된 기록이다. <보기>의 ①에 대한 박은식의 직접적인 비판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 보 기 > —

박은식은 청년기에 주자(朱子)를 큰 스승이자 성인(聖人)으로 생각해 그의 학문적 세계를 따라 수학하였다. 그러나 박은식은 후에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학문적 방향을 바꾸어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그러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세계의 바람과 조수는 이같이 흘러넘치고 학계의 빛나는 흐름이 저같이 발달하는데, ①옛 학문을 지키는 것을 숭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막고 거부하더니, 마침내 결과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해로움이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욱 심하다. ‘학술로써 천하를 죽였다.’라는 육상산(陸象山)의 말이 바로 이를 뜻함이 아니겠는가?”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에는 정재*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조선의 개국 초에는 의식에 걸맞는 정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 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재 중 하나가 <봉래의>이다. <봉래의>는 조선조 최대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작품으로, 「용비어천가」의 일부 장을 노랫말로 삼아 관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구성이었다.

<봉래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자는 <봉래의>의 시작을 알리고 후인자는 <봉래의>의 마침을 알리는 관현악곡이다. <봉래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인데, 각각 서두, 본론, 돌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의 순서대로 연행되며, 좌우로 배열된 악공 및 의물*을 든 사람, 그리고 연향에 참여한 모든 기녀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무용수들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노랫말인 「용비어천가」는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로, 처음부터 궁중 연향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125장 전체를 한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봉래의>에서는 이 중 일부 악장만 선택하여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사용하였는데, 치화평과 취풍형에서는 국문 가사로, 여민락에서는 한문 가사로 불렀다. 각 악곡의 서두는 춤 없이 노래만 부르고, 본론은 무용수들이 각각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돌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춤을 추던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춤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따라 한 가지 대형으로 춘다. 여민락은 대형을 형성하여 2명이 마주 보며 춤을 추고, 치화평은 동서남북에 무용수 2명이 각각 서 있고 무용수 2명이 차례로 돌아가며 북쪽에서 춤을 추고, 취풍형은 2명이 마주 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늘어선 대형을 형성하여 춤을 춘다.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을 향하여 춤추는 북향무, 서로 마주 보고 춤추는 대무, 서로 등을 향해 서서 춤추는 배무 등의 춤을 공통으로 추고,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

세종 대왕은 <봉래의>에 자신의 정치적 염원과 예술적 이상을 담았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종 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무·악이 어우러진 <봉래의>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봉래의>는 공사(公私) 연향, 조참*, 출궁이나 환궁할 때,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으러 가고 올 때 등에 연행되었는데, 이때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중 일부만 연행되기도 하였다. 세종 대왕 이후에도 <봉래의>는 궁중의 의례에서 연행되다가 중단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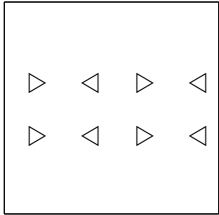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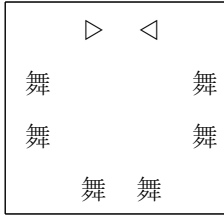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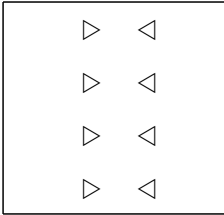
*정재: 고려와 조선의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기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의물: 의식에서 상하를 구별하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이르던 말.

*조참: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한 달에 네 번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3.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①에 해당하는 <봉래의>의 세부 구성과, ②에 해당하는 춤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단어를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연행 순서		여민락	지화평	취풍형
세부 구성	서두	춤 없이 노래만 부름.		
	본론	무용수들이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①)	무용수들이 다음 대형으로 바뀌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춤 대형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한문	국문	

*▷◁: 무용수 2명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함.
*舞: 무용수.

4. <봉래의>와 「용비어천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용비어천가」의 주제적 특성을 설명한 문장을 윗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공정성을 담보한 규율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도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은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노동 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 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임금의 변화율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지게 되어 임금 탄력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애덤 스미스는 노사 간 교섭력의 균등함이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사 간 교섭 지위에는 구조적 (①)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단결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고용자의 교섭권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관련하여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등을 포괄하는 (②)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6. 윗글 ①의 결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섭에서 '① 노동자의 지위'와 '②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각각 <보기 1>,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1> —————

낮아진다, 변화 없다, 높아진다

————— <보 기 2> —————

완전 탄력적이 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① 노동자의 지위: _____

② 임금 탄력성: _____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뿔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향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꺾전으로 흘러며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세밑: 한 해의 마지막 때.

*대포: 술을 별 안주 없이 큰 그릇으로 마시는 일.

(나)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서로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 사관 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兵事係)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A]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 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열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안은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안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율타리 곁에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율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단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도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짙는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좁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외교원(外交員): 은행이나 회사에서 교섭이나 권유, 선전, 판매를 위하여 고객을 방문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사원.

7. 윗글 (가)의 ㉠에 제시된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시적 화자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윗글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8. <보기 1>은 윗글 (가)에 등장한 시어들이고, <보기 2>는 윗글 (나)를 해설하고 있는 글이다. <보기 2>의 ㉠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 하나를 윗글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1> —————

겨울밤, 별뿔별,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포커, 달력, 늪

————— <보 기 2> —————

이 작품은 4·19 혁명의 실패와 5·16 군사 정변 후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을 억압하였다. 또한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당대 시민들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패배 의식,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가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보기>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을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 <보 기> —————

김승옥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사물 주어 구문들과, 특정 단어나 구절로 이어지는 문장의 연쇄 그리고 ㉠의인이나 활유를 활용해 자신의 몸을 타자화하는 문장들은, 단지 수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조차 소외되는 현대 개인의 모습, 나아가 개인 간의 단절과 의사소통의 불능이라는 소설적 주제와도 연결된다.

수 학 영 역

10. 함수 $y = \log_{\frac{1}{4}} x$ 의 그래프를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 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점 $(a, 2)$ 를 지날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1. $\int_0^3 x|x-2|dx$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 함수

$$f(x) = \begin{cases} \frac{x^3-1}{ax^2-a} & (x > 1) \\ \frac{3}{8} & (x \leq 1) \end{cases}$$

이 $x=1$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3. 삼차함수 $f(x) = ax^3 + 3x^2 + 3ax + 1$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4. 수열 $\{a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 a_{n+8} = 5$ 를 만족시킨다.

$\sum_{n=1}^4 a_{2n} = 1$ 일 때, $\sum_{n=1}^{36} a_{2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5. $-2 \leq x \leq 4$ 일 때, 방정식 $|\sin \pi x|^2 - \cos^2 \pi x = 0$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 전형유형 및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사정방법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면접 고사	실기 고사	서류	논술	계
논술	논술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61명	20				80	100
학생부 교과	참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96명	60	40				100
	학생부우수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314명	100					100
	학교장추천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55명	100					100
	사회배려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62명	100					100
	고른기회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63명	100					100
	체육실기전형	특수체육학	일괄합산	22명	60		40			10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및 등급점수 환산표

1. 학생부 반영교과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활용지표
전체전형	전체 모집단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교과 중 12과목 (한국사포함)	총 12과목 석차등급 (9등급)

2. 논술전형 학생부 석차등급 환산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9	98	97	96	95	94	90	85

3. 검정고시 합격자 취득점수 환산표

검정고시 취득점수	100~95.1	95.0~90.1	90.0~85.1	85.0~80.1	80.0~70.1	70.0이하
환산점수	98	97	96	94	80	50

4.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취득점수 환산표

논술고사 취득점수	800~795	794~787	786~772	771~751	750~728	727~707	706~693	692~685	684이하
환산점수	100	99	98	97	96	95	94	80	50

모범답안 확인

한신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hs.ac.kr>)



공지사항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모범답안



첨부파일 암호(hanshin2025!)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입학관리본부

18101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전화 : 031-379-0107~9

전송 : 031-372-6101

입학안내홈페이지 <http://ent.hs.ac.kr>
